



가정위탁 아동 10년 새 6배 증가



▲5월 22일 가정위탁의 날을 맞아 제주시 산지천광장에서 열린 홍보캠페인에서 한 어린이가 위탁아동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적은 메모지를 줄에 걸고 있다.

도내 위탁아동 325명...일반가정 위탁은 저조 사회적 인식 부족...가정위탁의 날 홍보캠페인

제주지역에서 부모의 실직이나 이혼 등 가정해체 위기로 다른 가정에 맡겨지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도내 가정위탁 아동은 325명(260가구)으로 가정위탁제도 도입 첫 해인 지난 2003년 57명(33가구)에 비해 6배 가까이 증가했다.

올해로 10년째를 맞은 가정위탁제도는 부모의 사망, 실직, 이혼, 질병, 학대, 빈곤 등으로 친가정에서 키우기 어려운 아이들을 보육원 등이 아닌 위탁가정에서 보호하는 제도다.

친부모가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상황이 되거나 아이가

18세 이상이 될 때까지만 돌본다는 점에서 입양과는 다르다. 또 호적 입적을 통해 친권을 옮기는 입양과 달리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일정 기간 양육해 친가정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

도내 가정위탁 유형을 보면 조부모에 의한 대리양육이 전체의 65% 이상을 차지했으며, 친인척 위탁 20%, 일반가정 위탁은 10%에 그쳤다.

일반가정 위탁이 이 같이 부진한 것은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가정위탁 제도를 알아도 '남의 아이를 잠깐 맡아 키운다'는 점에 대한 거부감 또한 여전하다. 혈연을 중시하는 풍조도 걸림

돌로 작용한다.

김미리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 팀장은 "한부모 가정이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아동을 맡기는 사례가 많다"며 "그러나 아직까지 가정위탁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제주도는 위탁가정에 대해서는 양육보조금으로 1인당 월 12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문화활동비와 학습비, 월동대책비 등을 지급한다.

한편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는 5월 22일 가정위탁의 날을 맞아 제주시 산지천광장에서 홍보 캠페인을 벌였다.

친가정과 위탁가정 두(2)가정이 내 아이와 위탁아이 두(2) 아이를 행복한 가정에서 잘 키우자는 의미로 매년 5월 22일을 가정위탁의 날로 지정, 운영되고 있다.

아동·노인시설에 '안전지킴이' 배치 복지부, 돌봄시설 학대근절 대책 마련

올해 하반기부터 전국의 어린이집과 노인요양시설에 '시설 안전지킴이'가 배치돼 아동·노인 학대 여부를 감시한다.

또한 학대 신고 포상금을 1000만원까지 늘리고, 학대 전력 범죄자는 10년 동안 돌봄시설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5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돌봄시설 인권보호 및 학대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돌봄시설 내 아동·노인 학대 사건이 잇따르는 데 따른 조치이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시설 내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어린이집과 아동양육시설에 시설안전지킴이가 배치된다. 학대예방교육을 받은 지역 아동위원·봉사지도원이 시설에 상주하거나 주기적으로 방문해 학대 등을 감시하는 기능을 한다.

노인요양시설은 지역 내 인권

활동가를 옴부즈맨으로 위촉해 시설에 수시로 드나들며 문제가 있으면 직접 시정을 요구하거나, 인권위에 직권조사를 요청할 권한을 부여한다.

복지부는 학대 전력자 명단을 공개하고 취업제한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한편 정기적으로 범죄경력을 조회해 돌봄시설 내 취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어린이집에만 적용된 학대 신고포상금 제도를 내년부터 모든 돌봄시설에 도입하고, 300만원(어린이집) 수준인 포상금액도 1000만원으로 올린다.

복지부는 시설 종사자들의 근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시설 인력배치 기준을 조정해 현행 2교대를 3교대로 바꿀 방침이다.

복지부는 돌봄시설 학대근절 대책반을 구성, 어린이집과 아동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만덕상 후보 전국 공모

제주특별자치도가 국내외 여성을 대상으로 '제34회 김만덕상' 수상자 후보를 6월 5일부터 7월 26일까지 전국 공모한다.

후보는 봉사, 경제인 등 2개 부문으로 나눠 추천을 받는다.

후보 추천자격은 전국 자치단체장이나 교육감, 중앙 또는 지역 단위의 각급 단체장, 역대 김만덕상 수상자, 성인 20인 이상이라야 가능하다.

시상식은 10월 2일 열리며 상금은 각 500만원이다.

지면소개

■ 종합 2·3면

영유아 1명 보육·교육비 월 21만원
제주사회복지 1호 시설 탐방(4)

■ 사회복지소식..... 4·5면

나를 찾아 떠나는 마음코칭 프로젝트
지역아동센터 전래놀이 한마당

■ 오피니언 6면

칼럼·시론 등

■ 특집 7면

장애인복지정책 개선방안 토론회

■ 기획 8면

10대의 시선으로 바라본 제주(2)



6월 사회복지시설·단체 행사

※ 다음호에는 7월 행사 소식이 게재될 예정입니다. 사전에 알고 싶은 행사 또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으면 이메일(blueseas-hm@hanmail.net) 또는 팩스(702-3383)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702-3784(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나눔사업팀)

시설·단체명	행사명	주요내용	일시·장소	문의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제주행복기자단 2기 단원 모집	이론 및 실기 교육, 언론기고 등	6월까지 13명 선착순 모집	732-2352
제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결혼이민자가정 방문교육	한국어 및 부모교육, 자녀생활서비스 등	연중 수시 모집	712-1140
제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6월 가족사랑의 날 행사	가족과 함께 천연 썸크림 만들기	19일 오후 7~9시 센터 3층 강의실	725-8005
제주종합사회복지관	마리와 함께하는 영어프리토킹 교실	영어기본문법, 일상영어회화 등	11일까지 교육생 모집, 수강료 월 5만원	753-2740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6월 정보화교육	한글과 자격증 과정반, 포토샵과 동영상 편집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 대상, 교육비 무료	702-0295~6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실무중심형 재무회계 완전정복	재무회계 이해 및 예산관리 등	1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협의회 2층	702-3784
	사회복지자원봉사 신규인증요원 양성교육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사업 안내 등	19·20일 오후 2~6시	

영유아 1명 보육·교육비 월 21만원

기관이용비 月 16만원...특별활동비 추가 부담

국·공립어린이집 입소 대기기간 평균 9.7개월

영유아 1명의 보육·교육비로 만 월 평균 약 21만원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영유아를 둔 전국 2528가구를 대상으로 보육실태를 조사한 결과 만 0~5세 영유아 1명의 보육·교육비용은 월 평균 20만8700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2004년 조사 때의 15만7600원, 2009년의 18만9500원에 비해 각각 32.4%, 10.1%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보육·교육비가 전체 가구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4, 2009년 각 6.4%에서 지난해 5.4%로 감소했다.

향목별로는 어린이집이나 유

치원 등 보육·교육기관 비용이 대부분을 차지해 영유아 1명이 한달 평균 16만1700원을 기관 이용비로 지출했다.

특히 사설 놀이학교 등을 보내는 경우 이용료가 월 평균 8만2300원에 달했고, 유치원은 19만3800원, 어린이집은 8만8800원이 들었다.

기관을 이용할 때 드는 추가 비용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영어, 체육 등 특별활동 비용이었다.

유치원에 보내는 경우 한달 평균 4만2600원, 어린이집은 3만9000원, 반일제 이상 학원은 3만8900원을 특별활동비로 지출했다.

어린이집을 다니는 영유아

10명 중 6명이 특별활동에 참여하고 있었고 평균 3.2개의 특별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많이 하는 특별활동은 영어로 70.5%에 달하고, 그 다음으로 체육 59.3%, 미술 44.7% 등의 순이었다. 중국어 등 영어 외의 외국어와 한자, 컴퓨터를 가르치는 어린이집도 있었다.

영유아 부모의 85%가 특별활동 ‘금액 상한선’, 57.8%는 ‘24개월 미만 특별활동 금지’ 등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제안해 대부분 특별활동 적정관리방안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유치원에 자리가 없어 대기한 경험이 있는 부모는 22.6%, 평균 대기기간은 6.4개월이었으며 국·공립어린이집의 대기기간이 9.7개월로 가장 길었다.



어버이날 흥겨운 어르신들

5월 8일 제주시 애항운동장에서 열린 ‘제41회 어버이날’ 기념행사에서 어르신들이 공연을 감상하며 흥겨워하고 있다.

저소득층에 문화예술 관람 지원

제주문화예술재단 문화바우처 사업

제주문화예술재단은 경제적 소외계층에게 공연, 영화 관람이나 도서 구입비용 등을 지원하는 문화바우처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문화바우처 사업은 문화카드와 기획바우처 사업으로 나뉜다.

문화카드는 1매당 연간 5만원 한도 내에서 전국의 공연장, 전시장, 영화관, 서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현장 결제 또는 인터넷 결제를 통해 티켓이나 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

이 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 계층이 이용할 수 있으며, 문화카드 홈페이지(www.문

화바우처.kr 또는 www.cvoucher.kr)나 거주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기획바우처는 중증장애인과 독거노인, 문화소외지역 거주자 등 카드방식만으로는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문화예술 관람이 어려운 계층을 위해 문화드림사업, 재가방문 서비스, 문화가치누리사업 등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제주문화예술재단 관계자는 “문화바우처 사업은 사회적, 경제적, 지리적 어려움으로 인해 문화예술 향유에 어려움을 겪는 소외계층에게 문화예술 프로그램 관람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문의=문화바우처 제주주관처(724-9004)

보건복지 분야 민·관 청렴 협약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은 5월 28일 도청 별관 4층 회의실에서 청렴한 보

건복지행정 구현을 위해 보건복지 관련 8개 기관·단체와 청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한국청소년제주도연맹,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제주지회,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총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여성단체협의회, 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 대한의사협회제주도의사회, 제주특별자치도위생단체연합회 등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단체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업무를 추진하고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지도, 받지도 않을 것을 약속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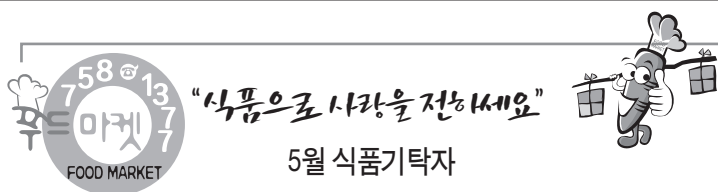
가톨릭장애인주간보호센터 전문강사 프로그램 운영



제주가톨릭장애인주간보호센터(원장 최영열)가 요리활동, 음악활동, 생태체험프로그램에 전문 강사를 활용, 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요리활동은 둘째, 넷째주 목요일에 진행되며 양용진 향토 요리전문가가 요리 강사로 참여해 샌드위치 등 간식요리법을, 음악활동은 매주 금요일에 홍종철 제주대학교 소리어울림 음악멘토링 센터 강사와 함께 난타북 등 다양한 악기로 합주연주를 익히고 있다.

생태체험프로그램은 월 1회 김장집 제주작가회의 회장이 강사를 맡아 진행한다.



5월 식품기탁자

▲안신희씨=채소 8kg ▲김치원=김치 41kg ▲뉴월드마트서사라점=계란(30입) 30판 ▲대성냉동 박상대 대표와 구산마을 부녀회장 김정심씨=쌀 820kg ▲동원F&B제주=냉장냉동식품 371개 ▲공동모금회지정기탁(김제농협)=쌀 5000kg ▲빵피아모=빵 104봉 ▲삼다유통=삼다수(2L×6)300팩 ▲서문식품=두부 480모 ▲신농영농조합=장아찌류 80kg ▲신성상사=국물용멸치(1.5kg) 100상자 ▲신화유통=식재료 631개 ▲영화식품=참기름 19개 ▲이든이네=멸치 4.5kg ▲제주보리촌=보리빵 105봉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세탁세제 2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삼다수(2L×6) 150팩 ▲커브스노형클럽=주식류 165개, 부식류 19개, 간식류 24개, 식재료류 30개, 생필품류 371개 ▲파리바게트동광초점=빵 501봉



사회복지협의회 2013년 4월 후원금 현황

(단위: 원)

구분	후원금수입	후원금 사용액
재가결연후원	510,000	510,000
난치병환아후원	60,000	0
자원봉사후원	675,000	675,000
복지사업후원	1,410,000	2,243,000
푸드마켓후원	2,955,000	516,860

* 후원자님들이 보내주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성안노인복지센터 최우수기관에 선정

사회복지법인 성안복지재단 성안노인복지센터(센터장 김옥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주관한 2012년 전국 재가장기요양기관 평가에서 방문요양과 방문목욕 등 2개 부문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기관 평가위원회에서 지난해 9월 3일부터 12월 14일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질 향상과 수급자의 알 권리 충족, 선택권 확대를 위해 실시됐다. 성안노인복지센터는 방문요양 부문에서 2회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방문목욕은 제주도에서 유일하게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 법무부장관상 수상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관장 홍주일)은 5월 20일 법무부에서 주관한 제6회 세계인의 날 공식행사에서 다문화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공로를 인정받아 법무부장관상을 수상했다.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2007년 8월부터 현재까지 5년여 동안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결혼이민자와 지역주민 간 1대 1 멘토링사업, 한글교육, 한국문화체험프로그램, 가족나들이, 한국요리교실, 이주여성내고향맛자랑축제, 다문화한마음축제, 다문화가족캠프, 집단상담, 이주민자조모임 등 다문화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제주사회복지'를 소개합니다

(4)춘강장애인근로센터 · 제주정신요양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1호 '춘강장애인근로센터'

정신요양시설 1호 '제주정신요양원'

홀로서기를 꿈꾸는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



‘어둠이 있는 모든 이에게 일월과 같은 밝음으로 생의 희망을 주며, 불편한 분에게 재활과정을 통하여 완속한 정신적·기능적 건강인을 만들며, 소외된 모든 이들에게 미래지향적인 발전과 사회참여의 징검다리가 되자.’

사회복지법인 춘강(春江, 이사장 이동한) 철학이다. 제주시 아라동에 위치한 춘강장애인근로센터(원장 고성도)는 이러한 춘강 철학을 이념적 근본으로 삼아 지난 1990년 11월 24일 문을 연 제주지역 최초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다.

홀로서기를 꿈꾸는 장애인에게 직업재활 훈련과 일자리 제공을 통해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섬유사업장에서 생산되는 침구류와 의류는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을 통해 판매되는데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우수한 디자인 능력과 최고의 품질 등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친환경인증제품인 복사용지는 불량률 ‘제로’에 도전하고 있으며, 감귤정과사업장에서는 맛있는 감귤정과를 생산, 판매하고 있다.

토너카트리지사업은 장애인근로센터가 지난해 10월 야심차게 시작한 사업이다. 폐카트리지를 재활용함으로써 환경보호와 자원 재활용 효과는 물론 소비자 입장에서 우수한 제품

1989년 5월 도내 최초 장애인근로작업장 개설

세탁사업 등 5개 사업장에 장애인 49명 고용

사회의 당당한 직업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돕고자 설립됐다.

춘강장애인근로센터의 전신은 1989년 5월 1일 개소한 장애인근로작업장이다.

당시 세탁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장이 맨 처음 들어섰는데 지금까지 20년 넘게 운영되고 있다. 1997년 불어닥친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와 장기간 경기 침체 등 각종 악재를 이겨낸 ‘알토란’ 같은 사업장이다.

세탁사업장이 경제위기의 파고를 극복하고 오랜 기간 꾸준히 수익을 창출하면서 경영노하우를 배우려는 이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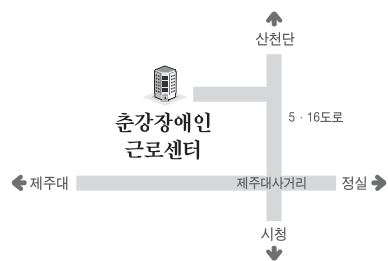
장애인근로센터가 ‘장수’ 하는 동안 순탄한 길만 걸은 것은 결코 아니다. 남모를 시련도 겪었다. 한 때 목공예사업장과 귀금속공예사업장을 운영했으나 판로난으로 인한 경영 악화로 결국 두 사업을 접어야만 했다.

현재 장애인근로센터는 세탁사업을 비롯 섬유사업, 복사용지사업, 감귤사업, 토너카트리지사업 등 모두 5

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는 게 장점으로 꼽힌다. 이른바 ‘착한 소비’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춘강장애인근로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은 모두 84명으로 이 중 49명이 장애인이다. 장애 유형별로 보면 지적장애가 25명으로 가장 많고 지적장애 15명, 청각장애 6명, 뇌병변장애 2명, 시각장애 1명 등이다.

이들은 통상 주 40시간을 일하고 월 70만원 이상의 보수를 받는다. 100만원 이상 받는 장애인도 7명에 이른다. 단순 직업훈련생이 아닌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다. 출퇴근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기숙사가 제공된다. 문의=702-7851



만성 정신질환자를 위한 도내 유일 요양시설



제주시 월평동에 자리한 제주정신요양원(원장 전내영)은 도내 최초이자 유일한 정신요양시설이다. 만성 정신질환자를 위한 요양시설로 지난 1989년 5월 13일 설립됐다. 개원 당시 입소 정원은 75명이었다.

정신요양원이 설립된 배경은 이렇다. 1979년 문을 연 도내 최초의 노숙인 시설인 제주시립희망원(현 제주시희망원)에는 노숙인 비롯 정신장애인, 알코올 중독자, 치매 환자 등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이 모여 생활했었다.

그러던 중 사회복지법인 ‘제주공생’이 1987년 제주시로부터 제주시립희망원(현 제주시희망원) 위탁 운영을 맡으면서 노숙인 보호시설과 정

기력하며 자폐증세를 보인다”며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말했다.

현재 요양원 입소자는 200여명. 성별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2배 가까이 많다. 입소 자격은 만 18세 이상, 60세 이하 만성 정신장애인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우선 입소 가능하다.

대부분 장기 입소자들로 연간 10명 정도만 입소하고 퇴소할 뿐이다.

이 시설은 남자병동, 여자병동, 재활병동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입소자들은 상담과 치료, 기술훈련, 여가생활, 건강관리교육, 작업치료 등을 통해 인지 기능과 대인관계, 사회적응력이 향상되면 재활병동으로 옮겨 생

1989년 5월 제주시 월평동에 첫 정신요양시설 개원

현재 200여명 입소·재활훈련 통해 사회복귀 도모

신장애인 요양시설을 각각 신축해 개원한 것이다.

장애 유형과 욕구가 다른 만큼 이들을 따로 분리해 각각에 필요한 치료 서비스와 재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신요양원은 만성 정신질환자들에게 의료, 상담, 각종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와 가정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이 엄연히 존재한다. 흔히 ‘정신분열병’이라고 불리는 ‘조현병’에 대한 가장 큰 오해가 바로 폭력성이다. 하지만 폭력은 조현병의 증상이 아니다.

인구 대비 범죄율로 따져도 2010년 기준 정상인의 범죄율은 약 1.2%인데 반해 정신장애인의 범죄율은 0.08%다. 정상인의 범죄율이 약 15배 정도 높은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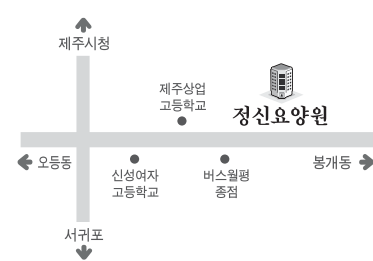
최용석 제주정신요양원 사무국장은 “조현병 환자 대부분은 감정표현력과 인지능력이 떨어지고 무표정, 무

활하게 된다.

재활병동에서는 정해진 규칙과 요일별로 짜여진 일과를 수행하게 된다. 또한 직업재활 훈련에도 참여한다. 현재 9명이 식당, 호텔 등 일반 사업장에서 일하며 사회복귀를 준비하고 있다. 퇴소 전 단계인 셈이다. 퇴소여부는 6개월마다 열리는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입소자 가운데 2004년 이후 퇴소해 자립한 인원은 40여명에 이른다. 정신질환자 보호 위주에서 2004년 재활 위주로 정책을 전환한 게 효과를 본 셈이다.

문의=723-2256~7





나를 찾아 떠나는 마음코칭 프로젝트

초·중·고교 대상 성교육·집단심리치료교육 운영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 청소년 지원사업 일환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김운영)은 서귀포시의 지원을 받아 2013년 지역 네트워크 활동을 통한 청소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나를 찾아 떠나는 마음코칭 프로젝트 II’를 4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오는 12월까지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서귀포시지역 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함께 배우는 아름다운 성(性), 나와 다른 너의 성(性) 이야기, 소중한 성(性) 바로 알기’를 주제로 한 성교육프로그램과 집단 심리치료 프로그램으로 구성, 운영된다.

우선 성교육 프로그램은 아동과 청소년 학대 및 성폭

력 예방교육, 사춘기 시절의 신체·정신적 변화에 대한 자기 이해와 조절, 청소년기에 꼭 지켜야 할 이성 교제 방법을 통한 전인적인 성장 도모, 올바른 아름다운 성 가치관 확립을 도와주는 교육이 이뤄진다.

또한 집단 치료프로그램은 위기개입 대상 아동과 청소년의 자아를 탐색해 문제 행동을 수정하고 대인관계 능력을 함양할 뿐 아니라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로 올바른 자아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당초 지역 내 초·중·고등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아 총 60회에 걸쳐 교육으로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이 최근 서귀포시지역내 한 초등학교를 찾아 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모습.

접수 마감 결과 신청이 많이 몰려 총 110회, 약 350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키로 했다.

이는 당초 계획량보다 183%로 초과한 것으로 성교육과 집단 심리치료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그만큼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09년부터 5년째 서귀포시의 지원을 받아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성교육과 집단 심리치료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아라종합사회복지관 가족한마당 축제 개최



아라종합사회복지관(관장 조성태)은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14일 아라LH아파트단지에서 ‘가족한마당 축제’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아라LH아파트 임차인회(회장 임근범)·노인회(회장 이순애)·청년회(회장 양국환), 아라LH관리사무소(소장 홍영림) 등이 공동 주관했다.

1~4부로 나뉘어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아름다운마을 가꾸기 캠페인, 개회식, 점심식사, 가족한마당 축제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가족한마당 축제에서는 레크리에이션과 민요공연, 기초건강검진, 구강검사, 네일아트, 단체 게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소/식/마/당

서호요양원, 효도 한마당잔치



서호요양원(원장 윤세찬)은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11일 요양원 입소 어르신과 그 가족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회 어르신 효도 한마당잔치’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서 참가자들은 요양원 측에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식사를 하고 푸른숲공연단의 축하공연을 감상했다.

제주장애인요양원, 봄나들이 행사



제주장애인요양원은 5월 11일 이용자, 직원, 자원봉사자가 참여한 가운데 ‘2013 하늘이의 봄나들이’ 행사를 개최했다. 손뜻모아, 그린사랑나눔회, 헌혈을 사랑하는 모임의 후원으로 이뤄진 이날 봄나들이에서 참가자들은 돌문화공원을 관람하고 조별미션, 사진촬영 등을 하며 오붓한 시간을 보냈다.

성지요양원, 효 관광 나들이



성지요양원(원장 송창권)은 최근 제주도 노인복지기금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요양원은 어버이날을 기념해 입소 어르신과 자원봉사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관광지를 관람하며 모처럼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예방 홍보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관장 김선희)은 5월 8일 제주시 주최로 열린 ‘제41회 어버이날’ 행사에 참석,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부스를 운영했다.

제주도노인보호전문기관은 이날 행사에서 개러터탈인형을 통한 노인학대 예방 홍보, 노인학대 관련 사진전시, 홍보물 배부, 이동상담실 등을 운영했다.

장애인부모회, 요가 프로그램 운영



(사)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부모회(회장 한봉금)는 5월 20일부터 매주 월, 금요일마다 부모아카데미 ‘요가’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6월 28일까지 총 12회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전문 요가 강사를 초청, 장애아 양육으로 심신이 피로해진 부모를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안전한 다이어트 방법과 건강한 생활습관 등에 대해 교육하고 있다.

국민은행, 애덕의 집, 삼겹살 데이



국민은행 신제주지점(지점장 김시형)은 5월 25일 장애인들과 함께 어울리는 시간을 갖고자 제주애덕의 집 실외 스포츠센터에서 ‘삼겹살 데이’를 진행했다.

장애인들은 국민은행 임직원들은 정성껏 구운 삼겹살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국민은행 신제주지점은 앞으로도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지원해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장애인보조공학센터 개소 1주년기념 세미나



제주장애인보조공학서비스지원센터(센터장 양예홍)는 4월 26일 제주시 봉개동의 한 식당에서 제33회 장애인의 날 및 센터 개소 1주년을 기념해 보조공학센터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사에서는 임명준 국립재활원 중앙보조기구센터 연구사와 권성진 한국보조공학기관협회 사무처장, 허영구 제주한라대학교 교수가 주제발표를 했다.

대각사, 탐장복에 쌀 전달



대한불교 법화종 대각사(관종스님 이석현)는 5월 21일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한도실)을 방문, 7kg 들이 쌀 100포를 전달했다.

이 쌀은 국민건강보험 제주시사와 한울간병봉사회와 연계하여 지원됐다.

3개 지역아동센터 모여 ‘전래놀이 한마당’

가족과 함께 참여해 딱지치기 등 전통놀이 즐겨
우리동네·늘푸른·용담지역아동센터 공동 개최



▲5월 11일 제주목관아 망경루 앞마당에서 열린 ‘가족과 함께하는 전래놀이 한마당’에 참가한 아동들이 전래놀이를 즐기고 있다.

3개 지역아동센터가 모여 아동들이 옛 전통놀이를 즐길 수 있는 한마당 잔치를 열었다. 우리동네지역아동센터와 늘푸른지역아동센터, 용담지역아동센터는 공동으로 5월 11일 제주목관아 망경루 앞마당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전래놀이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지난 2007년 우리동네지역아동센터에서 단독으로 처음 개최했는데 지난해부터 늘푸른지역아동센터와 용담지역아동센터가 함께 참여하면서 행사가 더욱 풍성해졌다. 행사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

하는 아이들과 그 가족, 자원봉사자 등을 대상으로 아이와 어른들이 함께 어울려 옛 전통놀이로 즐기고자 마련됐다. 평소 컴퓨터 게임에 몰두했던 아이들은 딱지치기와 달팽이, 비석치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등 전래놀이를 하며 색다른 즐거움을 만끽했다. 초등부와 중등부, 성인부로 모듬을 나누고 각 놀이마당에서 대결을 펼쳤는데 체력적인 면에서 중등부가 놀이왕이 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보호자들이 놀이왕에 등극했다. 한편 사단법인 ‘놀이하는 사람들’은 행사 때 전문 강사를 파견해 매년 새로운 놀이를 통해 보급해 주고 있다. 우리동네지역아동센터 관계자는 “행사 규모가 커지면서 적당한 장소를 섭외하는 것도 큰 고민거리였는데 제주목관아에서 흔쾌히 장소를 제공해줬고 제주해군방어사령부 소속 군인과 고등학생들도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많은 도움을 줬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여성중앙회 제주지부 봉사단체
제주시희망원 방문 전복죽 제공

여성중앙회 제주지부(사) 봉사단체는 5월 22일 제주시 월평동에 위치한 노숙인 복지시설인 제주시희망원(원장 박정해)을 방문, 희망원 이용자와 직원 100여명에게 점심식사로 전복죽을 만들어 제공했다. 박 원장은 “노숙인들을 위해 귀한 전복죽을 대접해 준 봉사단체에게 고마움을 표한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여성중앙회 제주지부는 앞으로도 일회성 봉사에 그치지 않고 매월 정기적으로 후원과 봉사활동을 통해 복지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소외된 이웃을 위해 봉사와 사랑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사회와 소통 ‘1일 관장제’ 운영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임태봉)은 5월 21일 복지관 ‘1일 관장제’를 운영했다. 1일 관장제는 지역사회와의 밀착형 소통으로 복지관에 대한 이해 도모와 복지관 사업에 긍정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복지관 사업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1일 관장제는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강원배 통합 부모회장이 위촉됐으며, 굿모닝 페스티벌(아침인사), 명예관장 소개 및 위촉장 전달, 각 사업팀 업무현황보고 및 간담회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현대하이스코와 함께하는 여름 김장김치 사업에 대한 현안보고를 받고, 실무자와의 논의를 통해 향후 추진방안과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 참여에 대한 네트워크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1일 관장제는 오는 12월까지 매월 운영된다.

평안전문요양원, 특화프로그램 운영



가든파티·미니올림픽 등 개최

평안전문요양원(원장 고지환)은 5월부터 연말까지 4차례에 걸쳐 입소 어르신과 지역사회 어르신, 자원봉사자, 복지기관 이용자 등을 초청해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한다. 5월에는 어버이날을 맞아 어르신들을 초청, 야외에서 삼겹살 등 식사를 제공하는 가든파티를 열었다. 9월에는 시설 어르신과 어린이집 원아들이 함께 팀

을 이뤄 다양한 게임을 즐기는 평안 미니올림픽을 열 예정이다. 이어 10월에는 지역주민들과 함께 평안장터를 마련하기로 했다. 12월에는 연중 프로그램을 통해 그동안 배운 노래와 춤 실력을 뽐내는 작은 음악회를 개최한다. 평안전문요양원은 특화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입소 어르신과 지역사회가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복한쉼터, 장애인 문화체험

행복한쉼터(원장 정석왕)는 5월 24일 도개비공원에서 ‘뇌병변 중증장애인의 행복한 문화체험’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뇌병변 중증장애인들에게 여가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제주대학교 봉사동아



리인 ‘해피바이러스’ 회원들은 장애인들의 이동을 돕는 등 봉사활동을 펼쳤다.



은성복지관, 잘잘특공대 출연

은성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봉한)은 5월 2일 방송사인 JIBS ‘잘잘특공대’ 프로그램에 출연해 어르신들에게 급식을 제공하고 독거어르신에게 밑반찬을 만들어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마음봉사회와 은성봉사단, 다문화봉사단이 함께 참여했다.



아가의집, 문화축제 개최

해정원 아가의집(원장 박두현)은 5월 11일 아가의집 운동장에서 가족, 봉사자, 후원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 25주년 기념식 및 문화축제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다양한 문화공연이 펼쳐지고 체험활동이 진행됐다.

순복음복지관, 효도잔치 열어

제주순복음종합사회복지관(관장 조영숙)은 5월 15일 지역에 거주하는 어르신 200여명을 초청해 ‘제7회 섬김과 나눔의 효도잔치’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난타공연을 시작으로 녁동배기, 노래자랑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녁동배기 시합에서는 건입동 경로당과 사라봉경로당, 산지 경로당이 한 팀을 이뤄 승부를 펼쳤다. 노래자랑에서는 각 경



로당에서 선발된 어르신들이 참가해 노래 실력을 뽐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김길순 어르신은 “인근 경로당 3곳이 모여 효도잔치를 하니 서로 정도 쌓이고 시간가는 줄 몰랐다”고 복지관 측에 고마움을 표했다.

칼럼

읍·면·동복지위원회의체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차준호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청소년과장

최근 복지 욕구의 증가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와 정치권 등에서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올해 복지예산은 최초로 정부 전체예산의 30%에 달하는 100조원이 넘는 규모로 편성 된 것만 보더라도 복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여실히 느낄 수 있다.

민간 활용 복지사각지대 해소

이러한 현상은 그 동안 오로지 경제성장만을 위하여 일해 온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풍요로움 속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뿐만 아니라 각각이 필요로 하는 복지 욕구가 다양해져 가고 있기 때문 일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행정의 힘만으로는 이러한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알고 민간의 복지자원을 활용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지난해 10월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

지기본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조례에 따라 도내 43개 읍·면·동에 복지위원회의체를 구성하였다.

읍·면·동 복지위원회의체는 지역주민, 복지기관 종사자, 주민자치위원 등 총 348명이 스스로 자원하여 구성되었으며 이 분들은 그 지역의 복지자원을 발굴하여 그 지역의 복지 대상자들에게 분배함으로써 혹시나 우리 주위에 있을지도 모르는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는데 일조를 해 나갈 전망이다.

도에서는 읍·면·동복지위원회의체의 활동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복지위원회의체의 운영 사례 등을 위주로 ‘올바른 역할 정립 및 운영활성화’를 위한 읍면동복지위원 회의체 전문화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이 외에도 복지위원들이 지역에서 복지자원 및 소외계층을 발굴하는 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복지위원 신분증을 발급하여 제공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

읍·면·동 복지위원회의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과 함께 복지위원회의체 위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 요즘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훈훈한 사연도 많이 들려오고 있다.

삼양동에서는 지역의 어려운 가구 아동들을 위하여 지역 내 식당과 매년 4회 이상 연 300명 이상에게 무료로 음식을 제공하

기로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대정읍에서는 지역 내에 있는 군부대 장병들과 연계하여 주말을 이용하여 저소득층 가구 학생 및 다자녀 가구에 대한 학습지도를 실시하고 있는가 하면, 안덕면에서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박모씨(조손가정) 가구에 대하여 지역 내 봉사대와 연계하여 지붕방수 처리, 대형 폐기물 등 쓰레기 수거, 전기·가스 안전점검 등 주거환경 개선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지역복지문제는 지역에서 해결

이외에도 다양한 읍·면·동복지위원회의체 활동실적이 있으며 지역 내에서 복지위원회의체 활동 사례 등이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새로운 복지전달체계로 부각되고 있다.

앞으로 복지위원회의체의 진정한 역할 정립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행정에서의 관심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복지위원들이 지역 내의 복지는 지역에서 해결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적극적인 활동을 펴 나가는 것이 관건이라 할 것이다.

거듭 지면을 빌어 아무런 대가 없이 지역의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읍·면·동 복지위원회의체 위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시론

장애인인권센터 설치해야



고현수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상임대표

작년 초 겨울 필자는 KBS의 고발프로그램 ‘호루라기’ 팀과 함께 서귀포시에 사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 이 25년 동안 처숙부로부터 상습적 폭력에 시달리고 수급비용을 착복한 현장을 취재자

동행한 바 있다. 지적장애로 인해 의사소통이 어려웠던 이 장애인은 우리의 방문을 극도로 경계하며 대화를 회피하다가 한 시간여의 설득 끝에 대면한 결과 대나무와 쇠파이프 등으로 구타당한 흔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읍사무소에서는 이런 인권침해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며 우리는 늦은 시간까지 촬영현장에서 혹시나 하는 협박위협에 조력환경의 취약함을 절실히 느낀 바 있다.

취재 후 가해자는 폭력사실 일부를 인정하였고 수급비 착복혐의를 포함하여 작년 9월 검찰에 의해 기소되었다.

제주도 인권 감수성 높여야

인권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예방을 위한 정부의 첫 가지적 실천이 2001년 김대중 정부 때 조사권과 시정명령(권고)권이 부여된 정부조직인 ‘국가인권위원회’ 설치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인력이 축소되고 정치적 독립을 둘러싼 부침 속에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날선 여론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설치 후 2012년까지 접수된 차별사건 1만4095건 중 장애인차별사건이 5883건으로 전체 사건의 41.7%로 다른 사건들을 압도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장애인 차별 진정건수는 단 한 건도 없다. 그 이유로 지리적 특성상 접근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고 장애인단체의 인권보호 노력이 모자람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런 와중에 2011년 제주지역의 장애인권 보호를 위한 의회 차원의 노력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조례」가 제정되었으나 인권침해예방과 조사 의뢰를 담당할 ‘장애인권 침해예방센터’설치는 제정과정에서 무산되었다.

장애인인권센터 설치가 무산된 것은 제주도와 의 입장차이가 컸음에 기인한다. 제주도는 선례의 부족, 재정의 투입, 장애인단체는 원래 그 일을 하는데 ‘육상옥’을 만드는 것이라 하였다. 인권감수성의 무지를 들어낸 것이다.

인권운동은 시민의 몫이지만 구체적인 인권상당은 숙련된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한 사안이다.

장애인인권조례가 제정된 전국의 10개 광역시·도 중 장애인인권센터가 설치된 곳이 7개소에 달한다.

서울과 광주의 경우 장애인을 포함해 시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인권담당관실과 조사팀을 별도로 설치 운영하고 있을 정도이다.

자치단체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전문성 확보와 제도적 장치마련 추세가 이렇 진데 제주도의 처사는 거리가 있다. 사례부족을 이유로 장애인권센터 설치를 거부하였던 제주도는 후에 매섭게 추운 날 ‘호루라기’와 같은 인권취재를 같이 해보신 후에 판단하시든지 하리라. 나의 기준에서 제주도의 인권감수성은 낙제점이다.

우리 시설·단체 소개하기

(사)대한노인회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노인자원봉사지원센터 제주지역운영본부



제주시 삼도2동 (사)대한노인회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회관 1층에 위치한 노인자원봉사지원센터 제주지역운영본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의거하여 설치된 센터로 전국에서는 지난 2011년부터 시범사업(전국 13개 시·도 참여)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제주지역은 2012년 4월 18일에 개소하였다.

센터직원은 총3명(본부장, 부장, 사무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도내 경로당 및 노인대학(원) 졸업생(재학생)을 대상으로 월 2회 이상 자원봉사활동을 하거나

계획 중인 어르신들의 모임을 노인자원봉사클럽으로 재탄생시키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사업 운영 첫 해인 2012년도에는 노인자원봉사클럽 50개를 지정하였으며, 올해에는 총53개 클럽(회원수 1000명)을 운영할 계획이다.

노인자원봉사클럽은 65세 이상 어르신들로 구성되어 단순한 지역 환경정화 활동은 물론 각종 범죄예방 캠페인, 어린이 교통안전지도, 야간방범순찰, 사회복지시설 방문봉사, 올레길 관광안내 및 표지판 정비, 지역 독거노인 돌봄이 활동 등 지역사회내 자원봉사손길이 필요한 부분을 찾아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자원봉사교육에 대한 어르신들의 학문적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클럽내 코치(대표 임원)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과 매년 전체 회원 800명을 대상으로 소

양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노인자원봉사클럽과 노인자원봉사지원센터간 연계체계 구축을 위해 행정지원요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행정지원요원은 대한노인회 각지회(제주시지회, 서귀포시지회) 직원들로 구성되어 클럽 활동에 대한 행정지원은 물론 새로운 자원봉사활동 개발과 보급에도 큰 힘을 실어주고 있다.

대한노인회 슬로건인 ‘부양받는 노인에서 책임지는 노인’으로와 ‘노노케어’ 정부정책방침에 이바지 하고자 노인자원봉사지원센터는 노년세대의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사회발전의 견인차가 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원동력인 소중한 인적자원이자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어르신들을 그동안의 삶의 지식과 경륜을 사회에 환원하고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장애인 복지정책 개선 방안 토론회

“모든 문화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해야”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주최로 5월 9일 장애인종합복지관 대강당에서 ‘장애인 복지정책 개선 방안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장애인이 영화관, 공연극장 등 문화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시설을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장애인이 영화관, 공연극장 등 문화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시설을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주최로 5월 9일 장애인종합복지관 대강당에서 열린 ‘장애인 복지정책 개선 방안을 위한 토론회’에서 박주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은 ‘장애인 문화복지 향상을 위한 제언’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말했다.

2011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장애인 대상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주일간 문화 및 여가활동 참여 여부’를 묻는 질문에 텔레비전 시청이 96%에 달했다. TV시청을 제외한 다른 문화생활은 전무한 상태다.

TV시청만 하다 보니 장애인의 문화·여가 활동 만족도가 매우 낮게 나타났다. ‘약간 불만족’이나 ‘매우 불만족’이라고 응답한 장애인이 60.5%에 달했다. 단편적인 문화생활에서 오는 장애인들의 현실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박 의원은 “장애인 문화복지 는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 권리이자 자아존중과 자아실현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매개체로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문화예술진흥법, 장애인복지법 등에 근거해 장애인을 위한 문화복지 지

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장애인에게 차별 없는 문화생활을 영위하도록 함으로써 풍요로운 삶을 누릴 권리와 자립을 위한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다.

하지만 현실은 이 같은 취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 인차별금지법 시행으로 지난해부터 사립대 미술관과 박물관, 1000명 이상 수용 규모의 민간공연장 등은 장애인 편의 제공 의무가 생겼지만 수화통역사, 점자, 화면확대프로그램, 음성서비스, 보청기기, 확대경

적인 비전 아래 장애인의 문화예술행동을 지원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애인들이 자신의 끼와 재능을 발산할 수 있도록 국내외 장애인 문화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장애인 전용 공연극장 설치도 주문했다.

이날 토론회에 나선 제주도장애인종합복지관 자조모임 ‘곰솔회’ 총무를 맡고 있는 김태우씨는 문화시설에서 자신이 겪은 체험담을 소개하면서 접

나 공연장조차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이 매우 부족하고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문화시설 관계자의 인식 부족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그는 “비장애인이 편안한 자리가 장애인도 편안한 자리”라며 “비장애인 좌석의 일부를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을 위한 지정석으로 만들어 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이어 “문화예술 공간에 진입하기까지 어려움이 많

지난해까지는 혼자서 일상생활이 힘든 1급 장애인 위주로 시행됐으나 올해부터 2급 장애인까지 확대됐다.

하지만 일부 장애인 이용자들은 장애인활동 보조인 수가 부족해 이용에 불편을 겪는 경우도 종종 있다.

장애인활동 보조인 입장에서는 장애인마다 욕구와 특성이 다르고 장애유형과 급수에 따라 근무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보조가 쉬운 대상자를 선호하며,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대상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원씨는 “장애유형이나 급수에 따라 좀 더 많은 활동지원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에게는 2인 1조로 인력을 투입하거나 급여 인상 또는 장애유형별 차등 지원 같은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뇌병변 자조모임 ‘담쟁이’ 회장인 강재언씨는 토론회에서 “법적으로 규정된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부담금을 납부토록 하고 이를 기금으로 적립해 고용장려금을 근무연수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씨는 또 “중증처럼 장애인을 1명이라도 고용하면 고용지원금을 지원해 주고 장애인이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영화관·공연장 등 문화시설, 장애인 편의제공 ‘외면’

문화활동 만족도 낮아...장애인 96% ‘TV시청이 유일’

제공이나 보조인력 등을 갖춘 곳은 드물다.

특히 사립 문화시설의 경우 편의시설 설치 의지는 있으나 경제적 부담으로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박 의원은 “장애인이 문화시설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문화시설의 접근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편의시설 설치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현재 개별 법령에 의한 단편적인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이 아닌 장기적이고 계획

근성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중도장애를 갖게 된 그는 “어느날 영화를 보러갔다가 영화관 직원이 정해진 맨 앞줄에서 혼자 우두커니 영화를 보게 됐는데 목이 뻣지근하고 피로가 몰려와 영화가 보기 싫을 정도였다”고 불만을 털어냈다.

영화를 볼 때는 화면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봐야 화면이 시야에 한눈에 들어오고 자막도 쉽게 읽을 수 있는데 화면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영화를 관람하다보니 현기증이 날 정도였다는 것이다.

가장 최근에 지어진 극장이

다”며 관련 법률에 따라 규정에 맞는 경사로와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줄 것을 제안했다.

장애인활동 보조인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자조모임 ‘길벗회’ 회장인 원윤희씨는 토론회를 통해 “남성 장애인활동 보조인이나 중증 장애인을 돌보는 보조인을 구하기 힘든 것은 처우 문제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장애인활동 보조인은 중증 장애인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활동을 보조하는 인력을 말한다. 장애인활동 보조인제도는

장애인식 개선 글짓기 및 사생대회 최우수작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은 제33회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제24회 전도 초·중·고등학생 장애인식 개선 글짓기 및 사생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글짓기, 그리기, 사진 등 3개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지난 4~5월 공모와 심사를 거쳐 선정된 각 부문별 최우수 작품을 소개한다. <편집자주>

글짓기 부문

나는 할 수 있다!

제주영지학교 초등부 6학년 강 태 훈

오늘도 난 반 친구의 도움을 받고 교실로 올라가고 있었다. 그때 우리 담임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언제쯤 혼자 밀래?” 나는 생각했다.

‘흥, 힘들어죽겠는데 내가 왜 밀어야 하지?’

그때였다. 선생님께서 반 친구에게 밀지 말라고 하셨다. 그때부터 혼자 미는 훈련을 시작하였다.

처음엔 반씩만 올라가고 천천히 한 단계씩 높이면서 올라갔다.

올라갈 땐 역시 힘들었다. 하지만 혼자서 살아갈 땐 이것보다 더 힘들텐데 말이다.

우리 담임선생님께서 열심히 올라갈 수 있게끔 옆에서 “화이팅! 힘!” 이라고 용기를 주셨다. 나는 그 말에 힘을 얻어 더욱 열심히 하였다.

이제 슬슬 올라가는 것도 익숙해질 때 나는 스스로를 테스트 하려 ‘혼자 올라가볼까?’

라고 결심을 하고 올라갔다.

아! 아직 완벽하게 익숙하지 못한 탓일까? 아직 좀 힘든 것 같다.

그래도 마지막 힘을 짜내어 열심히 하였다.

‘조금만 더! 조금만!’

눈앞이 고지다. 으라차!!!

올라왔다. 드디어 혼자 올라왔다. 나는 너무 뿌듯하였다. 하지만 힘이 빠진다. 교실에 가면서 헉헉 대면서 교실로 올라오자 담임선생님이 “그래 잘했어!” 라고 칭찬을 해 주시자 나는 뿌듯했다. 나는 그때부터 오르막길은 혼자서도 올라가곤 한다.

나는 처음 올라갈 때는 힘들었지만 옆에서 격려해주고 칭찬해주신 선생님들이 있어서 나는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휠체어를 혼자 타고 다닐 수 있어서 나는 매우 기뻐고 자유를 만끽하는 기분이 들었다. 그리고 ‘나는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였다.

10대의 시선으로 바라본 제주(2) -‘자연사랑 갤러리를 찾아서’-

사진으로 제주의 향기를 맡다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 풍광을 찾아나서 눈으로 직접 보는 것도 멋진 일이지만, 좀 더 특별한 제주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목마른 오아시스처럼 청량감을 주는 곳이 있다. 바로 제주인의 삶의 현장, 제주의 독특한 모습을 관람할 수 있는 자연사랑 갤러리이다.

이번에 몽생이기자단이 찾아간 아름다운 우리제주, 두번째 장소는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에 위치한 자연사랑 갤러리이다.

자연사랑 갤러리는 폐교된 가시초등학교를 미술관으로 새단장하여 문화 소외 지역 사람들도 쉽게 예술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30여 년 동안 지역 언론계에서 사진기자로 일해 온 서재철 관장이 갤러리를 방문하는 사람들을 반갑게 맞이하고 있다.

서 관장은 제주의 신비스런 자연, 제주인의 삶의 현장, 그리고 제주의 독특한 모습을 아름다운 사진에 담으시고 모든 사람들이 사진을 통해 소통할 수 있도록 자연사랑 갤러리에 전시했다. 그의 오랜 기자생활에서



▲몽생이기자단이 최근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에 위치한 자연사랑 갤러리를 방문해 서재철 관장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은 모습.

우려나온 제주에 대한 진정한 애정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자연사랑 갤러리는 현재 4개 전시장을 마련하여 사람들을 맞이하고 있는데, 제1전시장 ‘바람자리’에는 한라산의 사계절 및 제주의 신비스런 풍광이, 제2전시장 ‘따라비’는 제주에만 있는 독특한 것들을, 제3전시장 ‘흑백사랑’은 해녀, 옛포구 등 흑백사진 전용 전시장이며, 제4전시장 ‘화산탄 갤러리’는 화산탄을, 특별전시관에는 ‘비둘이 당근과 무우 이야기’가 전시되고 있다.

미술관에 걸린 신문기사의 “서터 누를 힘 있을 때까지 사진 찍을 것”이라는 말 속에서 그의 사진에 대한 열정을 느낄 수 있다.

조용하고 아름다운 마을 가시리에서 사진을 통한 진정한 힐링을 원한다면 몽생이 기자단이 강력 추천하는 자연사랑 미술관에 가보기를 추천한다.

<몽생이기자단>

영상물보기 =>



※ 이 영상물은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www.jejubokji.net) ‘생활게시판 알림’ 내 사회복지신문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글짓기 부문

똑같다!

서귀포고 1학년 석 진

한 번이라도 판 한 번이라도 보려고 했던 적이 있는가
본 적이 있는가
그들의 눈으로

한 번이라도 판 한 번이라도 들으려 했던 적이 있는가
들은 적이 있는가
그들의 귀로

한 번이라도 판 한 번이라도 느껴본 적이 있는가
그들의 마음으로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듣는 것
우리가 느끼는 것
그들도 똑같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
그들도 좋아하고
우리가 싫어하는 것
그들도 싫어한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다.

그리기·사진 부문



- 1 주제 동광초교 3학년 고 원 빈
- 2 뽕긋 구경 나왔어요. 벌써 봄인가요? 제주영지학교 초등부 5학년 김 준
- 3 방울 방울 개성있는 우리들 제주영송학교 고등부 2학년 이 보 라
- 4 당신이 두너쁘리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제주여중 1학년 문 지 현